

지역 소식통

부안읍, '디딤돌하우스 사업' 호응

부안읍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꿈의 발판, 디딤돌하우스' 사업을 저소득가정 2세대에게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관내 교육 복지사 등 민·관협력으로 추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의 발판, 디딤돌하우스'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환경 열악으로 가정 내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도배·장판 및 칸막이 설치 등으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 책상 등 학습용 기구를 지원하는 부안읍 맞춤형 복지팀 특화사업이다.

이 사업 수혜자인 조순 가정세대 김모(71세) 할머니는 "제대로 된 책상도 없이 공부하는 손녀를 보며 안타까웠는데, 새 책상에서 공부할 손녀를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무척 좋아한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구절초축제 참가자 대상 서비스 위생 마인드 함양 교육

올해로 12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정읍 구절초축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읍시가 관련 교육을 가졌다.

시는 최근 제2청사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88개 참가마을(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을 통해 축제 서비스와 위생 마인드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전북과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축제 서비스위생의 중요성과 관리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했다.

/부안=이옥수기자

특히 이 자리에는 김성기 시장과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인 김민영 산림조합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축제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마인드에 달려 있는 만큼 올해도 변함없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매주금요일 정읍장학속시네마 운영

정읍장학속 자율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정읍장학속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공유해 입사생간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한 취지다.

시네마는 이달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운영된다.

장소는 장학속 다목적실로, 인사생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엄선해 상영한다.

첫 상영일인 21일에는 장학속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음악 동아리 '안단테'가 공연을 선보였다.

또 '장학속 미소지기가 여러분께 선물합니다'라는 익살스러운 글씨가 적힌 팝콘 교환권을 배부해 즐거움을 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태권도협회

세계잼버리 유치 발벗고 나서

전북 태권도어울림마당 확대 개최 등 적극 홍보 나서

부안군태권도협회가 대한민국의 영원인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 태권도어울림마당을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 태권도협회는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태권도인들이 앞장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지난해 개최했던 '부안군 태권도어울림마당'을 전라북도 태권도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으로 확대 개최하며 세계잼버리의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안군 태권도협회는 지난 22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제부 잼버리 유치 기원 발대식 및 전라북도실버태권도단의 시범이 이루어졌으며 제2부는 세계잼버리 거리홍보를 부안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 태권도장별 수련생과 학부모가 함께 권역별로 나누어 홍보에 나섰다.

제3부는 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태권도체조시범 격파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태권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염원했다.

이 자리에 김종규군수는 축사를 통해 세계잼버리대회 부안에서 유치된다면 대한민국 부안 새만금이 국제적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



인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고, 송하진 지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듯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도 성공적으로 유치되리라 믿는다며 부안군 태권도협회 홍보철화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태권도협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계잼버리 설명회를 통해 흥 회장은 2023년 세계잼버리를 부안 새만금에 꼭 유치하여 우리 대한민국 명품 태권도가 한층 빛날 수 있고 성인태권도 활성화 및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신규 55건 · 계속 59건 · 국책사업 5건 등 119건 예산확보 점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 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8일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각 실과소별로 그동안의 확보 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 신규사업 55건과 계속사업 59건, 국책사업 5건 등 총 11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조가 신규사업 억제와 SOC, 농림분야의 타이티브 예산편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 속에 군은 기재부 3차 심의과정에서 경쟁

사항과 부처 풀(Pool)예산반영 진행 상황을 파악해 미반영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14억)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방향을 같이하는 등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예산을 확보할 것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평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5억)은 신속한 행정 절차이행을 주문했으며, 도시 침수 예방사업(618억)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예산을 확보하고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50억)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부처 풀 예산사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부안면 김영환 면장 '바람과 구름과 비' 시집 발간

고창에서 태어난 김영환 시인(고창군 부안면장·사진)이 퇴직을 앞두고 시집 '바람과 구름과 비'를 출간했다.



시인 김영환은 "바람과 구름과 비"는 고창 선배이자 서예가인 오광석 작가가 썼으며, 유난히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을 좋아하던 시인이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시심의 텃밭을 가꾸어 오다가 시 100여 편을 선보이게 됐다.

시인의 삶은 늘 구도적 사유를 견지하며 살아왔기에 시어 하나하나에 묻어내는 진솔한 언어에서 느껴지듯이 우리가 살아야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과 그 속에 아름다

운 공감이 묻어나고 있다. 이번 시집에는 다섯 형제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축하의 글을 실기도 했으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 같은 시인이 되기를 바라는 김영환 시인의 시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영환 시인은 글 머리에서 '삶'에 집착하다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기회가 적어지게 마련이며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번민의 밤을 보내곤 했다"며 "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낮은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삶의 명암은 늘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무상의 율리를 체득하고자 시심을 일구고 기쁘 구도자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고자 한다"고 소회를 담았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과학대 이은경 교수, 정읍 상학마을 명예이장 위촉

24일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주선으로 김경섭 덕천면장이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이은경 교수를 상학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조천형 농협정읍시지부장, 전북과대학교 두하영 안경과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최길심 이장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CEO와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운동이다.

한편, 전북과학대학교는 매년 정읍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대학생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학마을을 비롯하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애플수박, 첫 출하

1인 가족과 핵가족화가 되면서 과일도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명품수박의 고장인 고창군이 최근 사과처럼 꺾어먹을 수 있는 미니수박인 '고창 애플수박'을 첫 출하했다.

첫 출하를 축하하는 행사는 공음면 두암 선별장에서 박우정 군수와 우체국 및 유통 관계자와 기관사회단체장 수박 작목반과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애플수박은 일반수박의 1/4 무게에서 1~2인 가구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크기가 작은 만큼 음식쓰레기



도 크게 줄어 일반가정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애플수박은 산지에서 잘 수확한 신선한 수박을 직접 태매를 통해 고객이 편하게 받아들 수 있으며, 특별 제작한 에어포장으로 수박을 꼼꼼히 감싸 배달시 발생하는 파손의 걱정이 없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곰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94-8900
www.gangsanwine.com